

이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시중 참고서나 인강 교재들을 보면 오개념이 많고 설명 또한 빈약하며 예시들은 너무 난잡하다.

먼저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읽고 2x2매트릭스와 2인칭 대명사나 호격조사, 그리고 종결어미와 같은 언어적 표지들을 활용해서 완벽하게 익숙한 요소로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아직까진 수능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어렵게 낸 적은 없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출제된 적은 정말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수험생들의 뒷통수를 후릴 만한 부분이므로 자세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우선 ‘대화체’와 ‘대화’는 다른 개념이다. ‘체’가 영어로는 style을 뜻하며 한자 뜻은 ‘어떤 형상이나 격식’을 나타내므로 ‘시의 생김새’ 정도로 봐주면 된다. ‘일상적인 어투’나 ‘경어체’, ‘구어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독백’과 ‘독백적 어조=독백체’ 또한 완벽하게 다른 개념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대화식 구성’과 ‘말을 건네는 방식’은 무엇일까? 이것은 시 자체의 ‘생김새’가 아닌 시 속에 드러난 ‘구체적 상황’의 관점에서 판단해 주어야 한다. 먼저 독백의 상황이 있다. 독백의 상황이란,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닌 ‘혼자서 말하는 상황’이다. 웬만한 시들에서 등장하는 문체인 만큼 쉬운 개념이다. 그렇지만 주의해줘야 할 것은 ‘청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에도 ‘독백의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체적 상황’ 자체가 ‘화자 혼자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독백’으로 봐줘야 한다. 죽은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그 청자가 화자 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시 표면에 드러난 청자의 유무가 ‘독백’과는 무관한 독립된 개념이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표면에 청자가 드러나기만 한다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는 강사들이 많지만 언급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말을 건네는 방식’은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기만 하면 성립하는 개념이다. 이때 청자는 굳이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호격조사를 이용하여 청자를 ‘부르기’만 해도 허용가능하므로 유의하자. 마지막으로 ‘대화의 형식’과 ‘대화식 구성’인데, 이 둘은 같은 개념이다. 이는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면 허용가능하다.

이러한 단순 서술로써 이 개념들을 모두 분별해서 숙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했듯이 2x2 매트릭스와 지문의 표지들을 활용해서 많은 작품들을 비교하며 연습해보도록 하자.

1)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낚아잡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2003학년도 수능 15번 문제) 시의 소통 구조와 표현에 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듣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청자도 비교적 명확해. ‘당신은 행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현재 화자 앞에 청자가 없으니까 이 시는 독백이라고 봐야 할 거야. (O/X)

위 문제의 답은 O이다.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볼 때 ‘청자가 드러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청자가 설정되어 있어도 독백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시의 ‘생김새’를 보았을 때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으므로 대화체에 속한다.

상황		문제	독백체 (독백적 어조)	대화체 (구어체, 일상적 어투)
		독백의 상황	청자가 드러나 있음	
	청자가 드러나 있지 않음			
청자가 설정되어 있음	말을 건네기만 하는 상황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			

2) 한용운, ‘님의 침묵’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둥니다.

님은 갔으니까 독백의 상황이지만 ‘우리’라는 표지를 봤을 때 ‘청자는 비교적 드러나 있다고’ 봐줄 수 있다. 그런데 ‘문체’를 봤을 때 경어체를 활용하여 대화체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황		문체	독백체 (독백적 어조)	대화체 (구어체, 일상적 어투)
		독백의 상황	청자가 드러나 있음	
	청자가 드러나 있지 않음			
청자가 설정되어 있음	말을 건네기만 하는 상황			
	대화를 주고 받는 상황			

3)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 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 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불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너', '네'라는 '2인칭 대명사'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볼 때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청자가 설정되어 있어도 독백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두려움이 없겠는가'와 같은 진술은 설의법이므로 독백체로 봐줘야 한다. 대화체와 헷갈리지 말자. * 설의법 < 독백체

4) 김춘수, '강우'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 놓고 어디로 갔나,
 넘치지지미 땀뻘한 냄새가
 코를 땀뻘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 아니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뼉 두 뼉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흑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2012학년도 6월 모의고사 20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O/X)

'말을 건네고 있지도 않고', '청자가 설정되어 있지도 않다'

'이 사람'은 '대상'이지 '청자'가 아니다.

*'대상' ≠ '청자'인 것을 명심하자.

그러므로 답은 O이다. 이 작품을 '청자가 설정되어 있어도 독백인 경우'와 혼동하지 말자. 이 경우는 그냥 '청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독백'의 경우이다. 또한 시의 생김새를 보았을 때 독백적 어조인 것을 알 수 있다

상황		문체	독백체 (독백적 어조)	대화체 (구어체, 일상적 어투)
		독백의 상황	청자가 드러나 있음	
청자가 드러나 있지 않음			김춘수, '강우'	
청자가 설정되어 있음	말을 건네기만 하는 상황			
	대화를 주고 받는 상황			

5) 박목월, '가정'

지상에는
아홉 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칸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文數)가 다른 아홉 켤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십 구문 반(十九文半).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어나면
육문 삼(六文三)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壁)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여.
내 신발은 십 구문 반(十九文半).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의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 구문 반(十九文半)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2인칭 대명사가 나오진 않지만 호격조사를 통해 청자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은 80% 이상이 청자를 '부르기'만 하더라도 허용가능하다는 것이 평가원의 코드이니 제대로 숙지해놓도록 하자. 그리고 말을 건네는 상황에서는 문체가 대화체일 수밖에 없다.

상황		문체	독백체 (독백적 어조)	대화체 (구어체, 일상적 어투)
		독백의 상황	청자가 드러나 있음	
청자가 드러나 있지 않음				
청자가 설정되어 있음	말을 건네기만 하는 상황	X		박목월, '가정'
	대화를 주고 받는 상황			

6) 김수영, '사령'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黃昏)도 저 돌벽 아래 잡초(雜草)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行動)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옥된 교외(郊外)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대'라는 '2인칭 대명사'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볼 때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벗이여"라는 호격조사를 활용하여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 '벗이여'라는 구절을 빼면 '말을 건네는 방식'에서 '청자가 설정되어 있어도 독백인 경우'가 돼버린다는 점도 재미있는 사실이다. 또한,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와 같은 설의법은 독백체로 봐

줘야 하니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헛갈리지 말도록 하자.

상황		문체	독백체 (독백적 어조)	대화체 (구어체, 일상적 어투)
독백의 상황	청자가 드러나 있음			
	청자가 드러나 있지 않음			
청자가 설정되어 있음	말을 건네기만 하는 상황		X	김수영, '사령'
	대화를 주고 받는 상황			

7) 서정주, '꽃밭의 독백'

노래가 낮기는 그 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멎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게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開闢)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 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해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달힌 문에 기대 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海溢)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2인칭 대명사는 없지만 '꽃아'라는 호격조사를 활용한 구절을 봤을 때 말을 건네는 방식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 열어라'와 같은 청유형 어조가 안 쓰였더라도 '부르기만 하면' 평가원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세세하게 알아두도록 하자.

상황		문체	독백체 (독백적 어조)	대화체 (구어체, 일상적 어투)
독백의 상황	청자가 드러나 있음			
	청자가 드러나 있지 않음			
청자가 설정되어 있음	말을 건네기만 하는 상황		X	서정주, '꽃밭의 독백'
	대화를 주고 받는 상황			

8)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랴
 불어닥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랴
 앞들 더러 썩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추린 **나무들아**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떼지어 설 **나무들아**

‘너희’라는 ‘2인칭 대명사’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볼 때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나무들‘아’”라는 호격조사를 활용하여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황		문체	독백체 (독백적 어조)	대화체 (구어체, 일상적 어투)
		독백의 상황	청자가 드러나 있음	
	청자가 드러나 있지 않음			
청자가 설정되어 있음	말을 건네기만 하는 상황	X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대화를 주고 받는 상황			

9) 김영랑, ‘독을 차고’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훌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어도 머지 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 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虛無)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텅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벗’이 하는 말을 ‘그 무서운 독 그만 훌어버리’라 한다고 ‘간접인용’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허무한 디!’라며 직접인용도 하고 있다. 즉 대화가 ‘오고가고’있으므로 ‘대화식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 전체가 회곡처럼 대화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도 ‘대화’가 간접인용으로든 직접인용으로든 오고가기만 한다면 ‘대화=대화식 구성=대화의 형식’으로 봐 줄 수 있다.

상황		문체	독백체 (독백적 어조)	대화체 (구어체, 일상적 어투)
독백의 상황	청자가 드러나 있음			
	청자가 드러나 있지 않음			
청자가 설정되어 있음	말을 건네기만 하는 상황			
	대화를 주고 받는 상황		김영랑, ‘독을 차고’	

11)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별거승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별별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뱃가루로 삭아
 붉은 흉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팡 팡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머님’이라는 구절을 통해 ‘청자’를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다.

상황		문체	독백체 (독백적 어조)	대화체 (구어체, 일상적 어투)
독백의 상황	청자가 드러나 있음			
	청자가 드러나 있지 않음			
청자가 설정되어 있음	말을 건네기만 하는 상황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대화를 주고 받는 상황			

12) 박용래, ‘월훈’

첩첩 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앞 진 사잇길, 저 모래 독,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갱(坑) 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판집, 외판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슬토록 창문은 모과(木瓜)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판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너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무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溫氣)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발은 기침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폐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2009학년도 9월 모의고사 15번 문제)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목가적 분위기를 대화적 구성을 통해 보여 주고 있어 (O/X)

답은 X이다. ‘대화적 구성’이 아니기 때문인데, ‘대화적 구성’이라는 개념을 왜 물어봤는지 생각을 해보자. 일단 이 시에 쓰인 문체는 ‘대화체’로 볼 수 있다. ‘대화체’와 ‘대화적 구성’을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학생들을 노린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다.

상황		문체	독백체 (독백적 어조)	대화체 (구어체, 일상적 어투)
독백의 상황	청자가 드러나 있음			
	청자가 드러나 있지 않음			박용래, ‘월훈’
청자가 설정되어 있음	말을 건네기만 하는 상황			
	대화를 주고 받는 상황			

13) 박목월, '이별가'

뒹락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뒹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믄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뒹락카노 뒹락카노
 찌어서 동아뱃줄은 삭아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뒹락카노 뒹락카노 뒹락카노
 니 흰 옷자라기만 펄럭거리고……

오냐. 오냐. 오냐.
 이승 아니믄 저승에서라도……

이승 아니믄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뒹락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오냐.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청자가 드러나 있지만 화자 앞에 청자가 존재하지 않는 독백의 상황이므로 대화라고 할 수 없고 대화체라고 해야 맞다.

상황		문체	독백체 (독백적 어조)	대화체 (구어체, 일상적 어투)
		독백의 상황	청자가 드러나 있음	
청자가 드러나 있지 않음				
청자가 설정되어 있음	말을 건네기만 하는 상황			
	대화를 주고 받는 상황			